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행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 및 치료 요인

-공격성과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상 하

비행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 및 치료 요인

-공격성과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상 하

인 준 서

이상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와 치료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보호관찰 수탁기관에 수용중인 여자 비행청소년 22명이었으며 이들을 각각 11명씩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 AQ-K),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 KIIP-SC),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 척도(The Group Counseling Helpful Impacts Scale; GCHIS)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변량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공격성 척도 및 그 하위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인관계문제 척도 총점과 그 하위유형들 중 자기중심성,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자기희생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치료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를 쌍별 비교한 결과 사전-사후 비교에서는 자기중심성,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통제지배의 4개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사전-추후 검사에서는 자기중심성,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통제지배, 자기희생의 5개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셋째,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치료요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인식-통찰이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정적 변인으로, 문제 정의-변화는 부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 인식과 통찰을 도와주고 이를 집단치료에서 다루어 주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공격성, 대인관계, 게슈탈트 치료, 치료적 요인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 1.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5
- 2.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 8
- 3. 게슈탈트 집단치료 11
- 4.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 12

III.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 1.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15
- 2.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16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21
- 2. 측정도구 22
- 3. 자료의 분석 27

V. 연구결과

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평가	28
2.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30
3. 치료집단의 집단 내 변화 분석	32
4. 치료 효과에 관련된 변인의 분석	34

VI. 논의

.....	35
-------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게슈탈트 집단치료 회기별 요약	19
<표 2> 치료집단 및 통제집단의 구성	21
<표 3>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Q-K)의 문항 구성	22
<표 4>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의 문항 구성	24
<표 5> Kivlighan 등의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 문항 구성	27
<표 6> 연구문제1 실험설계	28
<표 7> 치료 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29
<표 8> 치료프로그램의 공변량 분석 결과	31
<표 9> 치료집단 대인관계문제 점수의 집단 내 사전-사후 비교	33
<표 10> 치료효과에 관련된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35

그림 목 차

<그림 1> 치료적 변화의 맥락	13
<그림 2> 대인관계 원형 모델	25
<그림 3> 공격성 및 대인관계문제 총점의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	32
<그림 4>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 모델의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 즉 산업화와 현대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하는 사회 구조를 낳게 되었고, 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퇴폐 향락주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각종 사회병리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지도 이념의 정책과 청소년 보호육성책의 미비로 비행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질도 난폭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화·집단화·저연령화·유흥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청소년 백서, 2005). 2003년 1월 22일 중앙일보에서 3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설문조사의 경우 12~14세 때 보호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20%, 15~16세 때는 60%가 되는 등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 형태와 내용면에서도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최근 청소년 비행의 특징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경제적 빈곤이나 환경결손에 의한 비행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보통수준이상이고 부모가 건재한 일반 가정환경이며 지능도 보통이상이며 학교성적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청소년 중에서 비행을 하는 비행의식의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창수, 1998).

특히 청소년기의 폭력성 범죄(예: 폭행, 강간, 강도 등)는 일반 연령층 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이와 같은 폭력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성인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한다. 12~19세의 청소년들은 폭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폭력범과 절도범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대인간 폭력 행동의 가장 흔한 형태인 폭행

은 이 연령층의 상해와 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소년범죄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범죄는 폭력화, 저연령화, 재범률의 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배중대, 2007). 소년 강력범(폭력)을 연령층별로 보면, 2007년의 경우 14세~15세가 37.1%, 16세~17세가 32.7%, 18세~19세가 30.0%이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다소 증감이 있지만 18세~19세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14세~15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법무연수원, 2008). 비행 행동(delinquent behavior)은 청소년기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에서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정선주 외, 2001; Scholte, 1999) 특히 법에 저촉되는 비행 행동으로 인해 체포된 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반복적인 범법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보고된 범법 청소년들의 6년간 재범률은 69%로 나타났고(서동혁 외, 2001; Beck외, 1987) 청소년기에 범법 행위로 구속되었던 사람은 대부분이 성인기에도 다수의 범죄기록을 갖게 되며 교육이나 결혼상태 등에서 정상범위에서 매우 벗어난 불량한 예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함봉진 외, 2001; Lewis외, 1994).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소년의 교화와 개선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이념에 따라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처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처분이란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며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교화·개선·보호를 위해 소년의 환경조정 또는 성행교정에 필요한 처분을 말한다(구소년법 제4조 1항). 이러한 법적조치는 비행청소년을 단지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기성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러한 보호처분이 명목 이상의 실효를 거두지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이후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심재무, 2008).

정책적인 문제점 뿐 아니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 프로그램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준법의식 고취, 범죄해악성 자각, 심성개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관찰소나 보호처분입소시설 등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전문가들에 의해 제공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백서(2005)에 의하면, 공격적인 비행청소년들은 싸우고 파괴하는 행동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통제한다거나 남의 허락을 구한다거나 기타 친 사회적 행동에는 능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충동성 통제능력의 결핍, 높은 공격성, 대인관계기술의 부족 등은 그들이 행한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야기할 지를 생각할 능력을 방해하여 직접적으로 비행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공격성의 감소, 대인관계기술의 증진 등을 개발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입각하여 그 동안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인지행동 상담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심성수련프로그램, 명상포함 집단상담 프로그램, 문제해결기술 프로그램, 심리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 시도되고 있고(양승남, 2003), 그로인해 임상가의 역할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정 및 예방과 관련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임상심리학자와 치료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대

부분이고 청소년들이 가진 외상(trauma)와 정서적인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다른 치료적 접근에 비해 정서적인 부분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으며, 관계중심적 치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다른 접근법들과 더불어 의미있는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실제 비행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격성 감소와 대인관계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며, 그 치료적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비행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와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 연구가설 1-1: 게슈탈트 집단치료를 참가한 비행청소년들은 참가하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다.
- 연구가설 1-2: 게슈탈트 집단치료를 참가한 비행청소년들은 참가하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연구문제2】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치료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가설 2-1: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치료 효과를 예언하는 주된 예언변수는 '정서적 자각-통찰'일 것이다.

Ⅱ.이론적 배경

1.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가. 청소년 비행과 공격성

공격성은 유형은 상이하지만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 청소년 비행 행동에서 발견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Dryfoos, 1989). 폭력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아동기 중기에 사소하게 시작된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기인 17세 경에 이르러 보다 빈번하고, 심각한 공격성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이다(Coie,1998). 기존에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별로 공격성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 연구해 오다가 최근에는 공격적 행동이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변화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격성과 비행의 중첩정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곽금주, 1993). 이러한 시도들은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공병률(comorbidity)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 및 발달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Menard, 1994).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 Loeber가 수행한 비행연구의 메타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 초기에 자신의 공격성을 발산하지 못한 자녀들이 후에 비행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Loeber, 1987). 특히 폭력 비행을 보인 대다수는 어려서부터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같은 환경체계와 관련해서 비행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격성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박현선, 1997).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

현황에서도 우연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2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청소년백서, 2005) 심각한 비행은 저지른 청소년들의 동기가 자신의 충동적인 공격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은 발달적으로도 청소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이 가시화된 비행행동으로 외현화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일차 예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보호관찰 청소년과 같이 이미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공격성에 대한 계슈탈트 심리치료적 접근

계슈탈트 심리치료에서 공격성은 경험을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태로 환경의 일부분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정의하며, 장애가 무엇이든 간에 이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공격적 행동은 욕구화 된 목적을 성취하는 한 방법으로 간주한다(Smith, 1994).

Perls는 공격성을 선택하기, 파괴하기, 동화하기, 즐기기, 흡수하기, 균형 이루기와 같은 각기 다른 성장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기술한다(Perls, 1951; Smith, 1994, 재인용). Perls는 공격성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공격성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공격적 행동은 유기체의 욕구를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공격성을 폭력 행위로서가 아니라 동화를 위해 환경을 분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Perls, 1951; Smith, 1994 한혜영, 2000 재인용). 우리가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없이 자원을 그대로 삼켜버린다면 우리는 해로운 물질을 소화시킬 위험에 놓이고 만일 이러한 과정이 어린 시절에 일어나게 되면 해로운 물질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적

인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욕구좌절로 인한 공격성을 미해결 과제로 본다. 미해결 과제란 자신의 욕구가 전경-배경 관계에서 방해받아 완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배경으로 들어가 현재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김정규, 1995). 자신의 욕구가 표현되지 못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잠재되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부딪치면 다시 떠올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언어 표현을 하게 된다. 이 미해결 과제가 많은 경우 전경과 배경의 자연스런 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개체는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마침내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미해결 과제가 쌓이는 이유는 개체의 자연스런 유기체적 활동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김은진, 1997).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격적 행동들은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분노의 감정을 회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흔히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불리는 공격적 행동에는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훔치는 행동 혹은 방화 등의 파괴적 행동이 있다. 아이들은 단지 불친절한 환경에 의해 유발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모르는 것이다(Oaklander, 1997). 따라서 공격성 자체를 억압하거나 없애려는 노력보다 이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립심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 행동을 알아차리고 이를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성은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형태나 행동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한 체험이자 학습이 된다.

게슈탈트 치료기법이 분노와 공격성 조절에 효과적임을 이야기하는 이론가들 중 Bohart(1977)는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 분노와 적의적인 태도 및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발견하

였고 Passons(1975)는 계슈탈트 상담에서는 공격성이 유용하며, 자기 표현적이자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인 인간의 힘으로서 세상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상과 함께할 수 있게하는 힘으로 보았고, Zimmerman(1979)은 ‘계슈탈트와 자아 참 만남’ 이라고 명명한 내담자 자아조정적인 계슈탈트 치료 기법을 사용한 결과, 이것이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오용선, 2005). 국내에서는 김은진(1997), 한혜영(2000)등의 연구에서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현정(2003), 김주희(2004), 최유경(2008)등의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계슈탈트 집단치료에서는 공격성의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

가. 청소년 비행과 대인관계 문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집단 내에서 자기위치와 역할을 알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며, 개인 및 사회적 소임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란 사회적 인지를 바탕으로 한 개인 간 문제해결 과정이다(정경희, 2004). 그러나 이것은 기능적인 문제해결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사회적·도덕적 수준에서의 이해를 요구한다. 즉, 대인관계에서 도덕적인 추론에 의해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은혁기, 1999). 따라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사회적 기술이 우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갈등이 생기는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은 상호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행청소년 역시 대인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설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열악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사상을 판단하여 반응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긴장과 충동적 행동을 보이고, 그들 또래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ichard와 Dodge(1982)는 사회적 적응과 대인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를 인기 있는 소년, 공격적인 소년, 고립된 소년을 표집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기 있는 소년은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수단을 구상해 낼 수 있었으나 공격적인 소년과 고립된 소년은 공격적이고 비효과적인 해결수단들을 구상하였다. Peters와 Bernfeld(1983)는 사려성-충동성과 사회적 추론에 관한 연구에서 인지양식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다름을 밝혔다. 사려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수행능력을 믿고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반면 충동적인 사람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며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임성이 적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한다(Conger, 1966; 전윤식, 1987재인용). 대인문제해결 능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전윤식(1987)등에 의하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 수단을 구상해 내는 능력과 청소년 비행과는 부적의 상관성이 있었다.

나. 대인관계에 대한 게슈탈트 치료적 접근

게슈탈트 치료는 실존적 만남을 통해 자각을 강조하며, 대인관계 갈등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서로를 활성화 하는 방법과 지역사회 의 소속감, 상호간의 지지와 존경을 성취하기 위해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보고 느낀 바를 해석하지 않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

을 중시한다(Zinker, 1977; 김정규, 1995 재인용). 게슈탈트 심리치료가 대인관계 측면에서 병리를 바라보는 입장은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Zinker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과 흥분, 운동 등은 그 자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하기 위해 존재하며,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 즉, 우리의 감정과 흥분, 운동 등은 내가 세계와 관계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세계와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삶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심리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적 장애란 개체가 세계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Zinker, 1977; 김정규, 1995 재인용). 이렇게 심리적 장애의 문제를 ‘관계’의 측면에서 보고, 치료의 목표를 치료자와 내담자가 상호교류를 하면서 순수한 대화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본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된다. 치료자와의 관계형성 방법을 배움으로써 타인과 접촉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경험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대인관계는 적절한 알아차림과 감정의 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접촉이 중요시되며, 알아차림을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를 통해 어떻게 자기를 알아차리는지와 타인을 알아차리는지를 배움으로써 대인관계 역량이 증진된다(Harris, 2000).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까지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접촉을 촉진시켜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처음에는 다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김정규, 1995). 이러한 감정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이 가능해 지는데, 접촉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 알아차림 즉, 현재 가장 중요한 감정이나 체험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한다. 대인관계 접촉에서 표현은 초대하는 행위이다. 표현이 없으면 서로간의 접촉은 최종 접촉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치료자는 자신의 감정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지금-여기에서의 상호관계

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내담자의 왜곡된 지각을 치료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현재의 새로운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Perls et al., 1951; Resnick, 1990; 김정규, 1995 재인용).

3. 게슈탈트 집단치료

게슈탈트 집단치료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성격에 따라 혹은 리더의 이론적 배경이나 창의적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집단작업이 가능하다(김정규, 1995). 독일에서는 Fritz Perls 연구소를 중심으로 드라마 기법, 신체 및 동작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 춤치료, 집단명상 등을 게슈탈트 치료에 응용하여 집단치료 기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Rahm et al., 1993; Klein, 1993; Rahm, 1990; Frohne-Hagenmann, 1990; Petzold, 1991; Leuner, 1986; 김정규, 1995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Perls가 창안한 게슈탈트 치료원리를 응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또한 게슈탈트 치료에서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알아차림과 접촉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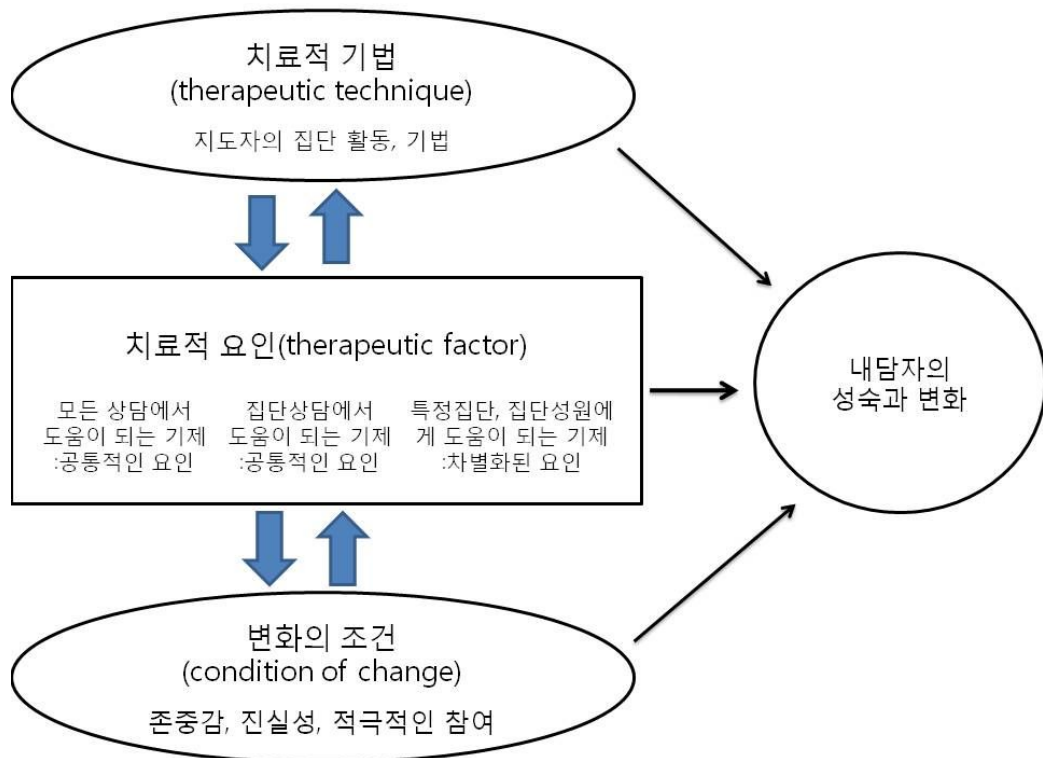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Rosner 등(2000)은 주요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를 통해 표현적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민현정(2003)이 우울 성향 아동의 우울감과 불안감 감소에 게슈탈트 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박윤이(2005)는 우울한 중학생의 자기개념에 게슈탈트 놀이 및 예술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승, 한혜영(2000)은 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두홍(1985), 김창겸(1987), 박종욱(1993), 한기백(1995)은 게슈탈트 집단상담에 의해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고했다. 김주희(2004)의 부적응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계슈탈트 치료와 학습 및 놀이치료와의 비교연구에서 학습 및 놀이 치료 프로그램은 우울과 불안, 공격성의 감소와 자존감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우울과 불안의 감소와 자존감의 향상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 계슈탈트 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사회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최유경(2008)의 연구가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반복적으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그 치료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치료 요인에 대한 탐색은 집단원들이 가진 개인차 중 어떤 영역이 집단의 치료적 효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각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치료를 제공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심혜숙,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치료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4.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작용하는 치료적 요인(therapeutic factor)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Holmes & Kivlighan, 2000). 치료적 요인이란 집단치료 과정 동안에 집단 지도자를 포함한 집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에 의해 집단원의 심리적 성숙과 변화를 초래하는 기제를 일컫는다. Colijin(1991) 등은 이러한 치료적 요인의 개념을 내담자의 심리적 성숙과 변화에 기여하는 변화의 모든 조건과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1> 치료적 변화의 맥락(Colijin et al., 1991)



<그림 1>에서 가장 위에 기술된 치료적 기법은 주로 집단 지도자의 활동이나 태도, 기법 등으로서 치료적 요인을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중간에 있는 치료적 요인은 모든 상담이나 집단치료(집단상담)에서 도움이 되는 기제인 공통적인 요인과 특정집단과 집단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기제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아래에 기술된 변화의 조건은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존중감, 진실성, 그리고 집단 상황에서의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다. 결론적으로 내담자의 성숙과 변화는 적당한 변화의 조건과 치료적 기법의 전제 하에 중요한 요소인 치료적 요인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Colijin, Hoencamp, Snijders, Spekk, & Duivenvoorden, 1991).

치료적 변화의 맥락은 <그림1>에서 보듯이 치료적 기법, 치료적 요인, 변화의 조건과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의 집단상담 연구 중 집단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집단의 유형과 집단의 발달단계,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연결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집단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치료효과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으로 정의된다(Elliott & James, 1989).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Yalom(1985)은 치료적 요인을 '환자를 효과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실제적 기제'라고 정의하였다. 즉, 집단상담 과정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는 특징적인 변화나 개선을 일컫는다. Bloch(1985) 등은 치료적 요인에 대해 '환자 상태의 변화에 기여하고, 치료자,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행하는 행동의 기능이며, 집단치료에서 일어나는 요소'라고 정의했다. Furiman과 Burlingame(1990)은 '집단 심리치료 회기 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제'로 치료적 요인을 정의하였으며, Kivlighan, Multon과 Brossart(1996)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집단원들의 지각'이라고 했다.

이렇듯 치료적 요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도, 집단상담에서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분명한 변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또한 치료요인이 집단 구성원들과 치료자, 그리고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내담자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는 요소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Yalom, 1995; Kivlighan et al., 1996).

Ⅲ.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1.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줄이고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게슈탈트 심리치료(김정규, 1995)’와 Oaklander(1978)가 저술하고 김정규(2006) 등이 번역한 ‘아이들에게 열린 창’, ‘The handbook of Gestalt play therapy(Blom, 2006)’, ‘Art therapy practice(Wadson, 2000)’ 등을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깊은 분노감과 버림받은 느낌, 불안감과 불안정한 느낌, 상처받고 혼란된 자기정체감을 가진다(최유경, 2007).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더 이상 공격적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집단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노 감정을 바로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알아차림과 감정의 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접촉이 중요시된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까지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접촉을 촉진시켜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처음에는 다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김정규, 1995). 이러한 감정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이 가능해지는데, 접촉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 알아차림 즉, 현재 가장 중요한 감정이나 체험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한다. 대인관계 접촉에서 표현은 상대방에게 접촉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자신을 개방하는 행위이며 상대편을 초대하는 행위이다. 표현이 없으면 서로 간의 접촉은 최종 접촉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치료자 자신의 감정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내담자의 왜곡된 지각을 치료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현재의 새로운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perls et al., 1951; Resnick, 1990; 김정규, 1996 재인용).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집단원과 집단 리더, 집단원과 집단원 사이에서의 접촉을 촉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프로그램은 주2회 100분씩 총 5주간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가. 초기단계(1~3회기)

초기단계는 집단치료의 방향이 설정되고 집단 구성원들이 상담의 의미를 찾는 단계로 집단원간의 접촉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실제적인 감정적 접촉은 없는 단계이다(Yalom, 1985).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집단원 개개인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가벼운 작업들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기에는 치료자가 집단원들을 이끌어 주되, 집단원들이 치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 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 치료자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성 파악과 함께 집단 역동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치료회기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준비하며 집단원들은 자신의 동기와 욕구 수준을 바탕으로 집단 참여 방향과 목표를 정하게 된다.

1회기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소

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각자의 별칭을 만든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변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게슈탈트 집단치료에서 중요시하는 지금-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이후 장미덩굴작업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그리게 하고 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했다. 장미덩굴작업을 사용한 것은 첫 회기에 직접적으로 자기 개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통한 투사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2회기에서는 가족화를 그려봄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분노, 좌절경험, 상처 등 미해결된 과제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며, 집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지와 공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원가족의 문제와 갈등을 알아냄으로써 리더에게도 집단원 개개인에 대한 배경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회기를 종료하기 전에, 리더는 GRIP(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카드를 활용하여 집단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다. GRIP카드에는 60장의 카드에 개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원활한 피드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3회기에서는 그림그리기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낙서를 하는 작업과 집단 그림그리기 작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낙서 작업에서는 개인별로 간단한 선이나 추상적인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리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집단 그림그리기에서는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한 가족이라는 느낌과 함께 서로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나. 중기단계(4~7회기)

중기단계는 집단 구성원간의 갈등과 지배, 저항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러한 저항과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집단 응집력이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치료자는 집단 구성원들간의 갈등이나 지배 관계와 더불어 개개인이 나타내

는 공격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지금-여기에서의 관계적 대화를 통해 미해결과제들을 알아차리고 접촉하게 한다.

4회기에는 찰흙작업을 실시하였다. 초반에는 찰흙을 마음껏 주무르면서 이를 통해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게 하였다. 이는 신체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리적인 문제의 해소와 내적인 안녕감을 가지기 위함이다. 본인을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각각 만들어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게 했다. 화나게 하는 인물을 만들어보고 분노를 표현해 봄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는 회기를 가졌다. 중기단계에서는 마칠 때 피드백을 더 이상 리더가 주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이 GRIP카드를 활용하여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회기에서는 GRIP카드를 활용한 피드백 주기 작업을 하였다. 이는 평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한 집단원들에게 자기존중감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활용되었다. 이전 회기에서 마지막에 짧게 피드백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피드백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6회기에는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고향상자를 만들어서 화가 나는 대상에게 화나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게 해 보고,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신의 분노감정을 실제 대상을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7회기에서는 자신을 인형과 동일시하여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미해결과제를 해소하며 자신의 언어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아차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후기단계(8~10회기)

집단치료의 후기단계는 초기와 중기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는 단계이자,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게 형성됨으로써 집단에 대한 신뢰와 집단의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사기가 진작되고 자기개방이 확

대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치료자는 집단원들이 회기에서 학습한 것을 통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9회기에서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며 소통하는 연습을 하였다. 이는 분노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활용이 되며 비언어적 소통에 관한 연습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이다. 10회기는 지난 회기들을 돌아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표1> 계슈탈트 집단치료 회기별 요약

단 계	회 기	회기 목표	주요활동내용	시간
초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 라포형성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10분
			◦ 규칙정하기	10분
			◦ 별칭 짓기 및 소개하기	10분
			◦ 장미덩굴 작업	2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20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차림 증진 • 원가족과의 미해결 과제 다루기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워밍업 게임	30분
			◦ 가족화 그리기 및 소개	4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리더 피드백	20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으로서의 인식 강화 및 지지 형성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워밍업 게임	20분
			◦ 집단 그림그리기 작업	4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리더 피드백			20분	

중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차림 증진 • 분노감정 자각 및 해소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워밍업 게임	10분
			◦ 찰흙작업	3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20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기 모습 발견하기 •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피드백 해주기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워밍업 게임	40분
			◦ 그림카드 작업	4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10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비전과 꿈 찾기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콜라주 작업	6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30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패턴의 자각 및 변화 • 분노감정 자각 및 해소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인형놀이작업			6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30분	
후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패턴 알아차리기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놀이치료	6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30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통한 감정 알아차리기 • 음악을 통해 감정 표현하기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음악작업	6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30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 지금-여기에서의 감정 알아차림	10분
			◦ 지난 회기 돌아보면서 느낀 점 나누기	60분
			◦ 전체 소감 나누기 및 상호 피드백	30분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경기도 소재 ○○○보호관찰수탁기관에 수용중인 청소년 범죄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제외하였으며 22명을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치료집단 11명, 통제집단 11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범죄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2> 치료집단 및 통제집단의 구성

	치료집단	통제집단
평균나이(표준편차)	16.82(0.14)	16.1(1.85)
범죄유형	인원(명)	
폭력, 공갈, 감금 등	7	10
절도, 특수절도 등	3	1
성범죄, 성매매 등	1	0
합계	11	11

두 집단 모두 11명으로 사전조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료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검사는 퇴소한 2명을 제외한 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가.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 : AQ-K)

Buss 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한다. 신체적 공격성 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형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보통, 4:꽤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Buss와 Perry(1992)에 따르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의 도구적 혹은 운동 요소를 반영한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동의 정서적 혹은 정동적 요소를 나타낸다. 적대감은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한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하다.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성 .74, 언어적 공격성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총점=.86)으로 나타났다(서수균, 권석만, 2002). 동일한 연구에서 5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신체적 공격성 .71, 언어적 공격성 .83, 분노감 .60, 적대감 .75(총점= .81)이었다.

<표3>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Q-K)의 문항 구성

문항구성	문항수	문항번호
신체적 공격성	9	1, 5, 9, 13, 17, 21, 22, 24, 27
언어적 공격성	5	2, 6, 10, 14, 18
분노감	5	3, 7, 11, 15, 25
적대감	8	4, 8, 12, 16, 19, 20, 23, 26
총 27문항		

나.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

(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 KIIP-SC)

본 연구에서 사용할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은 Baer, Horowitz, Rosenberg, Ureno, Villasenor(1988)가 대인관계문제검사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개발하고 Alden, Wiggins 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원형척도 (IIP-Circumplex Scale, IIP-C)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의 단축형 검사이다. 특히 이 척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 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척도 구성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 (PA),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 성(BC),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DE),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억제(FG),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HI),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 성(JK),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 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LM),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문제

를 측정하는 과관여(NO)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형식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며, 총 점수는 최소 40점에서 최대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대학생과 성인이 각각 .61 ~ .81, .61 ~ .78의 범위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과 성인이 각각 .60~.78, .58~.77의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는 KIIP-C의 내적 합치도인 .69 ~ .93, 대학생과 성인 집단을 결합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인 .61 ~ .84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값이지만 문항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해 보면 양호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 ~ .89로 선행연구에 비해 높게 나왔다.

<표4>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의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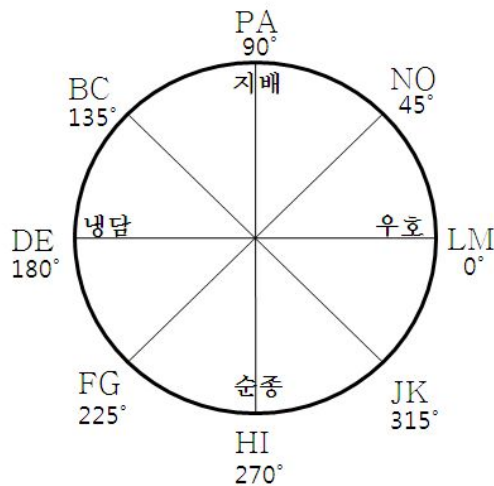
문항구성	문항수	문항번호
통제지배	5	19, 21, 27, 30, 33
자기중심성	5	6, 7, 10, 13, 22
냉담	5	2, 8, 9, 15, 18
사회적억제	5	4, 12, 17, 31, 36
비주장성	5	1, 3, 5, 11, 16
과순응성	5	14, 23, 34, 37, 39
자기희생	5	20, 24, 25, 32, 40
과관여	5	26, 28, 29, 35, 38
총 40문항		

대인관계 원형 모델은 Sullivan등의 영향을 받은 Leary(1957)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 라는 두 축

을 가진 원형 위에 대인관계 행동들을 순서 있게 배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남운, 2001).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애 차원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대인관계 원을 8등분하게 되면, 시계방향으로 각 8등원(octant)에 PA(지배), BC(냉담-지배), DE(냉담), FG(냉담-순중), HI(순중), JK(우호-순중), LM(우호), NO(우호-지배)라는 부호가 관습적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 행동은 이 8분원들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대인관계 원에서는 바로 옆에 배열된 행동들끼리 유사하며, 반대편으로 갈수록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된다. 대인관계 문제 점수들을 각 분원의 선상에 표시한 후 그 점들을 이은 8각형의 면적이 넓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대인관계 원형 모델



다. 중대사건 질문지(Critical Incidents Questionnaire: CIQ)

Bloch등(1979)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회기가 끝난 후 집단원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인 사건

또는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CIQ의 자유반응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모임에서 겪은 사건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록하되 내용, 관련된 사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느낌, 행동,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십시오.” 이는 치료 요인 척도의 설문에 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라.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 척도(The Group Counseling Helpful Impacts Scale; GCHIS)

Kivlighan, Multon 그리고 Brossart(1996)등이 개발한 것을 권경인(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3개의 다른 평가체계를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Elliot(1985)의 유익한 효과 분류법(Taxonomy of helpful impacts)으로부터 10항목, Mahrer와 Nadler(1986)의 유익한 순간의 범주평가(Categories of good moments)에서 12항목, Bloch등(1979)에 의한 치료자 평가체계 10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중대사건 질문지(CIQ)를 근거로 32개 모든 항목을 집단 상담이 끝난 후 집단상담 과정의 사건들을 평정하며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치료회기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감정적 자각-통찰, 집단 내 관계, 타인 대 자기 집중, 문제 정의 및 변화 등의 네 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위요인 중 감정적 자각-통찰은 자신과 문제에 대한 이해와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나타낸다. 집단 내 관계 요인은 집단원 및 지도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서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타인 대 자기 집중 요인은 집단원과 집단지도자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긍정적인 관계를 체험하는 것이며, 문제 정의 및 변화 요인은 다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각 문항에서 개인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

당되는 하위영역의 치료적 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경인(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 ~ .90이었다.

〈표5〉 Kivlighan 등의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 문항 구성

요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정서적 인식-통찰 (Emotional Awareness-Insight)	9	1, 3, 11, 12, 13, 14, 15, 17, 23
관계-분위기 (Relationship-climate)	9	6, 7, 8, 9, 10, 16, 22, 27, 32
타인 대 자기초점 (Other versus Self Focus)	5	2, 24, 26, 28, 31
문제 정의-변화 (Problem Definition-Change)	5	4, 5, 20, 21, 30
4요인	28문항	

3. 자료의 분석

가. 연구문제1의 자료분석

연구문제1에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점검한 후 사전, 사후 검사의 비교를 하기 위하여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사용한 공변량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1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공변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척도에 대해서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변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실험집단에 한해서 사후 검사 1개월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점수와 비교하여 유지 및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표6> 연구문제1 실험설계

G1	O1	X1	O2	O3
G2	O4		O5	

G1 : 실험집단

G2 : 통제집단

O1, O4 : 사전검사(AQ-K, KIIP-SC)

X1 : 실험처치(게슈탈트 집단 프로그램)

O2, O5 : 사후검사(AQ-K, KIIP-SC)

O3 : 추후검사(AQ-K, KIIP-SC)

나. 연구문제2의 자료분석

연구문제2에서는 각 척도에 대해 사후검사와 사전검사의 차이를 치료 효과로 가정하고, 치료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치료 효과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평가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이 치료시작 전 상태에서 동질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령, 공격성 총점 및 그 하위척도들의 점수, 대인관계문제 점수 총점 및 그 하위척도들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표7> 두 집단의 여러 변인에서 치료 전 동질성에 대한 평가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실시한 결과이다.

<표 7> 치료 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척 도	치료집단(n=11)	통제집단(n=10)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 령	16.82(0.14)	16.10(1.85)	0.977	.335
공격성	81.36(10.82)	72.50 (10.47)	3.625	.072
신체적공격성	26.09(5.26)	24.00 (5.83)	0.746	0.398
언어적공격성	12.64(2.87)	13.20 (3.08)	0.188	0.669
분노감	16.09(2.59)	14.10 (1.66)	4.297	0.052
적대감	26.09 (5.50)	21.30 (5.25)	4.146	0.056
대인관계총점	114.55 (17.17)	110.50 (23.73)	0.203	0.657
통제지배	17.91 (2.91)	15.50 (4.22)	2.354	0.141
자기중심성	10.45 (2.62)	9.70 (2.54)	0.447	0.512

냉담	12.64 (4.13)	13.40 (5.64)	0.127	0.725
사회적억제	15.09 (5.19)	13.60 (5.15)	0.978	0.335
비주장성	14.36 (3.93)	14.10 (4.58)	0.020	0.889
과순응성	14.73 (3.82)	14.80 (4.05)	0.002	0.967
자기희생	15.27 (3.93)	16.20 (2.57)	0.504	0.486
과관여	13.45 (2.58)	13.20 (4.05)	0.030	0.864

여러 변인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인 구통계학적 변인 및 공격성, 대인관계능력에 있어서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치료집단의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집단간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을 보면 공격성 총점 및 그 하위척도들에서는 치료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대인관계문제 총점($p < .05$)과 그 하위도들 중 자기중심성($p < .05$), 사회적 억제($p < .05$), 비주장성($p < .05$), 자기희생($p < .05$) 등은 치료집단에서 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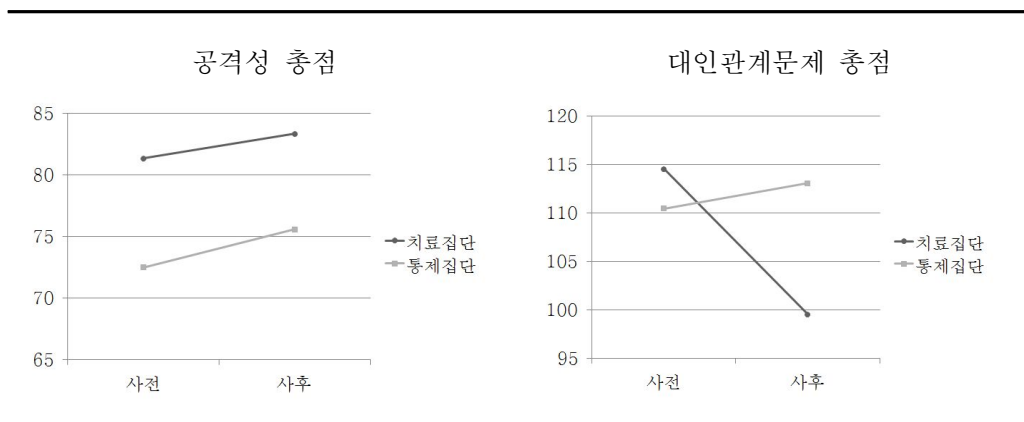
<표8> 치료프로그램의 공변량 분석 결과

척도명		치료집단(n=11)	통제집단(n=10)	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공격성총점	사전	81.36(10.82)	72.50 (10.47)	0.940	.345
	사후	83.36(13.93)	75.60 (6.82)		
신체적공격성	사전	26.09(5.26)	24.00 (5.83)	0.000	.995
	사후	27.36(6.27)	26.10 (4.18)		
언어적공격성	사전	12.64(2.87)	13.20 (3.08)	1.899	.185
	사후	14.73(3.101)	13.20 (3.58)		
분노감	사전	16.09(2.59)	14.10 (1.66)	0.786	.393
	사후	15.82(2.44)	14.00 (2.54)		
적대감	사전	26.09 (5.50)	21.30 (5.25)	0.973	.337
	사후	25.18 (4.53)	22.30 (3.80)		
대인관계총점	사전	114.55 (17.17)	110.50 (23.73)	6.321	.022*
	사후	99.55 (14.42)	113.10 (24.32)		
통제지배	사전	17.91 (2.91)	15.50 (4.22)	1.008	.329
	사후	15.55 (2.58)	15.60 (3.37)		
자기중심성	사전	10.45 (2.62)	9.70 (2.54)	5.111	.036*
	사후	8.55 (2.62)	10.50 (4.22)		
냉담	사전	12.64 (4.13)	13.40 (5.64)	2.028	.171
	사후	11.64 (2.87)	13.60 (4.88)		
사회적억제	사전	15.09 (5.19)	13.60 (5.15)	4.493	.048*
	사후	11.82 (2.60)	12.90 (6.51)		
비주장성	사전	14.36 (3.93)	14.10 (4.58)	4.934	.039*
	사후	11.73 (3.41)	14.00 (4.85)		
과순응성	사전	14.73 (3.82)	14.80 (4.05)	0.884	.360
	사후	13.64 (2.54)	15.00 (5.73)		

자기희생	사전	15.27 (3.93)	16.20 (2.57)	4.475	.049*
	사후	13.82 (2.93)	17.00 (3.62)		
과관여	사전	13.45 (2.58)	13.20 (4.05)	2.161	.159
	사후	12.82 (2.64)	14.50 (3.03)		

* $p < .05$

<그림3> 공격성 및 대인관계문제 총점의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



3. 치료집단의 집단 내 변화 분석

치료집단의 집단 내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대인관계문제 척도에 대해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9>와 같이, 대인관계문제 총점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사전 검사와 추후 검사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 하위척도 별로 살펴보면,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의 감소폭이 유의미하게 큰 것은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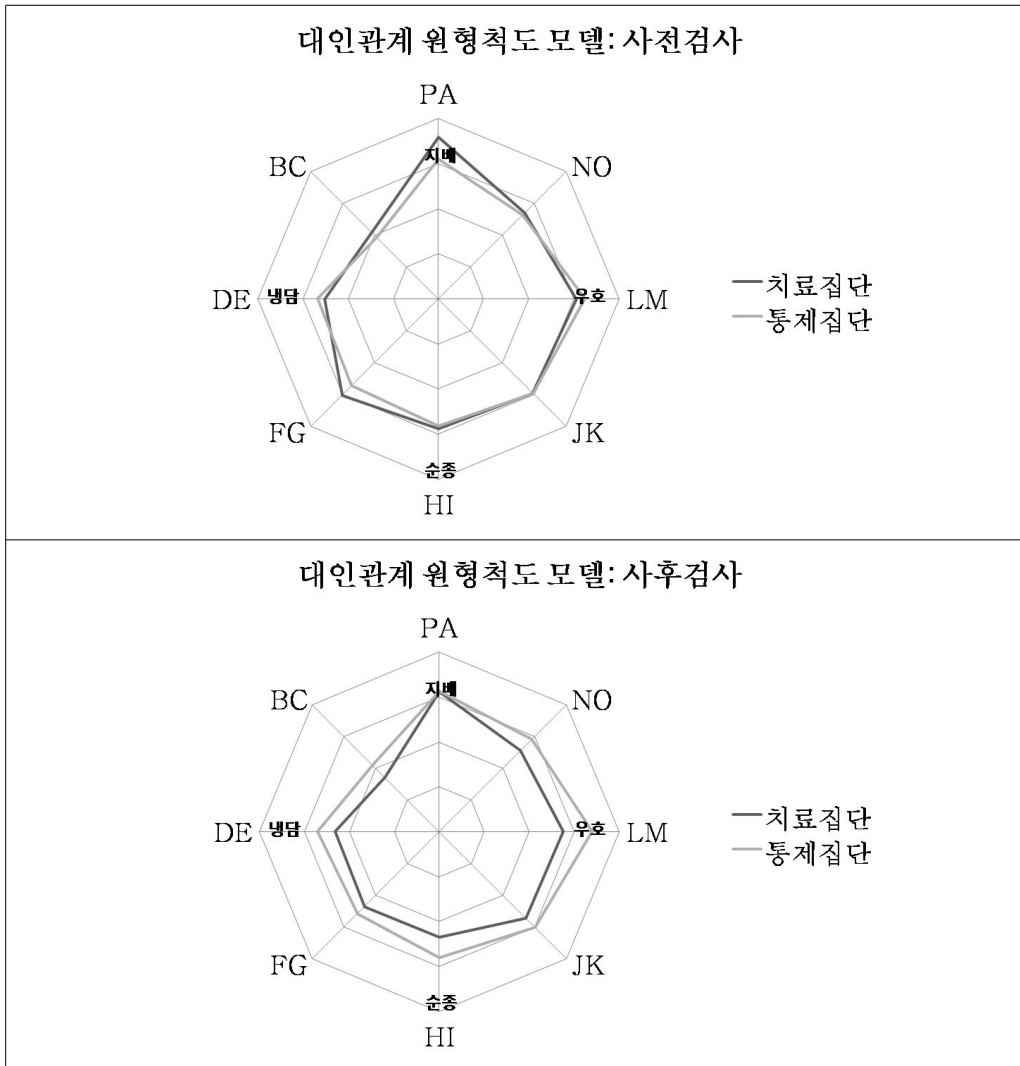
지배 ($p < .05$), 자기중심성 ($p < .05$), 사회적 억제 ($p < .01$), 비주장성 ($p < .05$)의 4개 영역이었으며,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추후검사 점수의 하락폭이 유의미했던 것은 자기희생 ($p < .05$)이었다.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낮아진 4개 하위척도는 모두 추후검사에서도 사전검사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 ($p < .01$)을 보여주었다. 과관여 척도는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추후 검사에서만 유의미한 점수의 하락을 나타내었다.

<표9> 치료집단 대인관계문제 점수의 집단 내 사전-사후 비교(n=11)

척도명	사전	사후	추후	집단내 변화(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대인관계	114.55 (17.17)	99.55 (14.42)	93.55 (13.14)	.014*	.066	.002**
통제지배	17.91 (2.91)	15.55 (2.58)	13.00 (9.57)	.043*	.007**	.000**
자기 중심성	10.45 (2.62)	8.55 (2.62)	8.18 (2.44)	.019*	.267	.003**
냉담	12.64 (4.13)	11.64 (2.87)	11.27 (2.10)	.361	.596	.249
사회적 억제	15.09 (5.19)	11.82 (2.60)	11.55 (2.34)	.005**	.720	.009**
비주장성	14.36 (2.87)	11.73 (3.41)	10.82 (2.09)	.012*	.211	.009**
과순응성	14.73 (3.82)	13.64 (2.54)	13.82 (2.23)	.243	.749	.424
자기희생	15.27 (3.93)	13.82 (2.93)	13.18 (3.46)	.174	.283	.048*
과관여	13.45 (2.58)	12.82 (2.64)	11.73 (2.49)	.596	.014*	.106

* $p < .05$ ** $p < .01$

<그림4>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 모델의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



4. 치료 효과에 관련된 변인의 분석

치료 효과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해 보기 위하여 치료 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진단척도의 사전-사후의 점수 변화량을 치료효과로 가정하여 종속변인으로

두고, 3회에 걸쳐 실시한 치료적 요인 질문 척도의 4가지 요인인 정서적 인식-통찰, 관계-분위기, 타인 대 자기초점, 문제 정의-변화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분석을 통해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한 것과 중대사건 질문지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신뢰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3개의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표10>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10> 치료효과에 관련된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n=8)

준거변인	예언변인	β	R ²	수정된 R ²	ΔF
대인관계 능력	정서적 인식-통찰	1.800	.716	.669	34.200*
향상정도	문제 정의-변화	-1.585	.224	.236	15.132*

* $p < .05$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예측해 주는 변인은 정서적 인식-통찰로 대인관계능력 향상정도를 71.6%만큼 설명해 주었으며 문제 정의-변화는 부적변인으로서 22.3%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 외 다른 변인들은 회귀식에서 제외되었다.

VI. 논의

본 연구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공격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치료집단이 공격성에 있어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김은진(1997), 한혜영(2000) 등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며, 민현정(2003), 김주희(2004), 최유경(2008)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공격성의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공격성을 측정하는 AQ-K의 문항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측면보다는 내재된 분노 등을 측정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대인관계문제 검사에서는 총점 및 자기중심성, 사회적억제, 비주장성, 자기희생 등의 4가지 하위척도에서 통제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인관계 원형척도에서 자기중심성은 냉담과 지배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나타내게 된다. 반대속성은 과순응성이다. 사회적억제는 냉담과 순종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점수는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수줍음과 철수를 의미한다. 반대속성은 과관여이다. 비주장성은 순종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감, 주장성(assertiveness)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치료집단의 비주장성의 변화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고, 집단 내에서의 사전-사후 비교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대상자들의 자존감 향상과도 관련이 높으며, 최유경(2008)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자기희생은 통제의 차원에서는 중립적이며 친애의 차원에서는 우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수가 높은 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만 지나치

게 민감하고 이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원형모델을 제시한 Leary(1957; 정남운, 2001 재인용)에 의하면, 대인관계는 ‘친애’의 차원과 ‘통제’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두 축을 중심으로 하위척도들이 감소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네 가지 척도 중 자기중심성과 사회적 억제가 감소하였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데, 관심의 초점과 시야가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가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겨나면서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의 차원에서 순종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 억제와 비주장성의 감소는 자기 개방과 더불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순종 속성이 높은 것은 내재된 분노와도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개체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면 권위자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사(introjection)가 일어나기 때문이다(김정규, 1995). 내사가 심한 개체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관에 박힌 행동을 하며 깊은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부분에서 논한 공격성의 증가와 순종 속성의 감소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치료집단의 내사가 집단치료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게슈탈트 집단치료에서의 치료요인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인식과 통찰이 대인관계문제에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서적 인식과 통찰은 ‘알아차림’이란 용어로 재정의 할 수 있는데, ‘알아차림’이란 “개체가 개체-환경의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적·외적 사건들을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Yontef, 1993).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중요한 자신의 욕구나 감각, 감정, 생각, 행동, 환경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알아차림’은 미해결과제를 전경으로 떠올려 이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

게 된다. 치료집단에서 정서적 자각-통찰이 주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한 것은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작업들이 ‘알아차림’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문제 정의 및 변화가 부적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회기 전체를 통틀어 집단원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을 공언하는 과정이 없었으며, 개인의 심리 내적과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치료적 요인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낮은 점수로 평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치료효과가 크게 나타난 집단원의 경우 정서적 자각-통찰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높은 점수로 평정한 반면 문제 정의 및 변화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평정하였으며, 치료효과가 작게 나타난 집단원은 상대적으로 문제 정의 및 변화 항목에 다른 항목들과 유사한 점수를 줌으로써 부적 상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례수가 충분히 많다면 이러한 개개인의 평정이 전체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실제로 문제 정의-변화가 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다. 대상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과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성인 재소자나 남성들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동기 수준에 있어서도 이들이 보호관찰기관에 의한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자의에 의해서 참가하는 일반인들과는 동기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프로그램의 효과나 치료적 요인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치료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위척도의 수에 비해 사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단일 사례가 예측변인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로운 치료적 요인의

과약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와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동일한 작업을 경험하는 비교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가 게슈탈트 집단치료 자체로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치료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통제집단 또한 다른 형태의 집단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치료적 요인의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예측변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의 소지는 최소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추후에는 다른 접근의 치료방법과 게슈탈트 집단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를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했다는 점이 객관적 분석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 제삼자가 관찰 후 평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윤주, 김영신 (2003).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상호적 친구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03, Vol. 16, No.4, 1-21.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6권 2호, 29- 43.
- 곽윤이 (2005). **게슈탈트 놀이 및 예술치료가 우울한 중학생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2005 청소년 백서**.
- 권경인 (2001). **집단상담 활동의 유형화 연구 - 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주홍 (1985). **Gestalt 치료기법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의 변화와 그 지속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03).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지, 이흥표, 권기준 (200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연구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대인관계 향상 효과 연구 - 일반상담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08, Vol.27, No.2, 547-567.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2, Vol.21, No. 2, 391-411.
- 김은진 (1997).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통한 아동의 공격성 변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규 (1995). **게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정규 (2000). **비파사나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합한 불안장애의 계슈탈트 심리치료**. 성신여자대학교
- 김정욱, 권석만, 정남운 (2001)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김주희 (2004). **부적응 문제를 가진 영세가정 아동들의 계슈탈트 치료와 학습 및 놀이치료 효과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창겸 (1987). **형태주의집단상담의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수, 김현실 (1997). 한국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 내적 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997;8. 57-69.
-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소영(1995)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현정(2003) **우울 성향 아동에 대한 계슈탈트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욱 (1993) **Gestalt 집단상담이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선, 김유경 (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2호**.
- 법무연수원 (2008). **2008 범죄백서**.
- 배종대 (2007).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고려법학, Vol49, 33-59**.
- 서동혁, 정선주, 손창호, 김원식, 고승희, 함봉진, 조성진, 김영기, 이중재 (2001).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석방 후 6개월 이내 재범의 예측요인. **신경정신의학, Vol.40, No.3**.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2, Vol. 21, No.4, 809-826.
- 심재무 (2008). 제6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한국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Vol.10, No.2, 591-611.
- 심주한 (2008).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심혜숙 (2002). 내담자의 심리유형과 상담에 대한 기대에 따른 집단상담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Vol. 9, 49-69.
- 양승남 (2003).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훈련의 효과 :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염영옥 (1999). **폭력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REBT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오용선 (2005).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은혁기 (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의식, 대인지각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린아 (2008). **사회불안 아동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 (2005). Factor Structure of the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for a Korean Offender Population.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005, Vol. 11, No.2, 47-71.
- 이창수 (199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아동교육**, Vol.7 No.1, 202-217.

- 이후경, 김선재, 차정화, 봉수연, 안현주 (2000). 품행장애 청소년을 위한 외래집단정신치료 치료요인. 2000, **신경정신의학 제39권 제2호**, 309-322.
- 임정민 (2003). **노인 우울 감소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윤식 (1987). 대인문제해결능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연구보**.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44-74.
- 정경희 (2004).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2001, Vol.10, No.1, 117-132.
- 최유경 (2008).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사회기술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기백 (1995). **계슈탈트 자각증진 집단상담에 의한 내담자 체험수준과 자아 정체감의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혜영 (2000).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지수 (2005).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가진 중학생을 위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사진 작업을 위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Kivlighan, D. M., Multon, K. D., & Brossart, D. F. (1996). Helpful impacts in froup counseling of multidimensional rating syst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347-355.
- Bierman. K. L., & Wargo, J. B. (1995). Predicting the longitudinal course associated with aggressive-rejected,

- aggressive (non-rejected), and rejected (non-aggressive)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7, 669–682.
- Bloch, S. (1979). A method for the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257–263.
- Bloch, S., & Crouch, E. (1985).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och, S. (1986).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In *Annual Review*. Vol 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678–698.
- Blom, R. (2006). *The Handbook of Gestalt Play Therapy*.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ohart, A. C. (1977). Role playing and interpersonal-conflict redu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15–24.
- Buss (1961). Instrumentality of aggression, feedback and frustration as determinants of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159–162.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p442–459
- Coie, J. D., Lochman, J.E., Terry, R.,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Consultant Clinical Psychology* 1992:60, 783–792.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New York: John Wiley & Son.
- Colijin, S., Hoencamp, E., Snijders, H. J. A. Van der Spekk, M. W. A., & Duivenvoorden, H. J. (1991). A comparison of curative

- factors in different types of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1(3), 365–378.
- Dryfoos, J. G. (1989).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R., & James, E. (1989). Varieties of client experience in psychotherapy: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43–467.
- Furiman, A., & Burlingman, G. M. (1990). Consistency of matter;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vidual and group process variab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18(1), 6–63.
- Holmes, S. E., & Kivlighan, D. M., Jr. (2000). Comparison of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78–484.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7). “Prediction.” in Herbert 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John Wiley & Sons, 370– 371.
- Menard, S., & Elliott, D. S. (1994). Delinquent Donding, Moral Belief, and Illegal Behavior : A Three-wave Panel Model. *Justice Quarterly*. 11, 173– 188.
- Oaklander, V. (1978). *Windows to our children: A Gestalt approach to children and adolescents*. Moab. UT: Real People Press (New York: The Gestalt Journal Press, 1992).
- Oaklander, V. (1997). *The therapeutic proces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Gestalt Review*, 1(4), 292–317.
- Perls, F. (1947). *Ego, Hunger and Aggression*. *Working*, Great Britain: Unwin Brothers(1966 edition) . (San Francisco: Orbit

- Graphic Arts. (1969 E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 Perls, F. S., Hefferline, R. E., & Goodman, P. (1951).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the Human Personality*. New York: Delta.
- Peters, R.D., & Bernfeld, G.A. (1983). Reflection–impulsivity and social reas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983, 19, 78–81.
- Resnick, R. (1984). Gestalt Therapy East and West: Bicoastal dialogue, debate or debacle? *The Gestalt Journal*, 7, 1, 13–32.
- Richard, B., & Dodge, K.A. (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82, 50, 226–233.
- Wadeson, H. (2000). *Art Therapy Practice: Innovative Approaches with Diverse Populations*. :Wiley & Sons.
-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logy(3rd ed.)*. New York: Basic Books.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4th ed, New york: Basic Books.
- Yontef, G. M. (1993). *Awareness Dialogue & Process*. New York: The Gestalt Journal Press. Inc
- Zimmerman, J. (1979). *Creative process in gestalt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ABSTRACT

An analysis of effects and therapeutic factors of Gestalt group therapy for delinquent adolescents: with a focus on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skills

Lee, Sang-ha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estalt group therapy program for probationary juvenile delinquents and to show that the program is helpful in reducing aggression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addition, the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therapeutic factors of Gestalt group therapy.

The subjects were 22 female probationary offenders who committed violence, theft, confinement and sexual crimes. Their ages ranged from 14 to 19 years. The subjects were equal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During the experimentation period,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with ten group therapy sessions by a trained therapist twice a week. Each session of the program lasted 100 minutes and mainly included art therapy techniques.

To measure the degree of aggression, a 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AQ-K) was used and the 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 was applied to ass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 Group Counseling Helpful Impacts Scale (GCHIS) and Critical Incidents Questionnaire (CIQ) were also used for investigating therapeutic factor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ose who received the Gestalt group therapy made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skills whereas aggression was not reduc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scores of four subscales of KIIP-SC decreased after the therapy. The four subscales were a follow-up assessment conducted three weeks after the program ended, and showed that the retention of therapeutic effect is still meaningful. In linear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adopted for investigating the therapeutic factors, 'emotional awareness-insight' was a significant prediction variable.

In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Gestalt group therapy program can be helpful to delinquent adolescents with interpersonal problem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sychotherapy practice.

부 록

부록 1.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

부록 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단축형

부록 3. 중대사건 질문지

부록 4.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 척도

부록1.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평소에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그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원만함 그렇지 않다	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3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1	2	3	4	5
4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있다	1	2	3	4	5
5	누군가 화를 한껏 돋구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충돌이 잦다	1	2	3	4	5
7	일이 뜻대로 안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1	2	3	4	5
8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1	2	3	4	5
9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10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13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5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6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원만함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18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9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게 있어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1	2	3	4	5
20	나는 소위 '내 친구'라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 몰래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1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23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	2	3	4	5
24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6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7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부록 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단축형

본인이 '대인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기 어렵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나는 대체로 이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	2	3	4	5
35	늘 주목받고 싶어한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	2	3	4	5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다닌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 할 때가 많다	1	2	3	4	5

부록 4. 집단상담의 치료 요인 척도

앞면에 작성하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시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사건시에 영향을 미친 나의 행동, 느낌, 사고, 변화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1~5점 사이에 O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매우 그 지 다	우 렷 않 다	그 저 렇 다	그 렷 다	매우 그 렷 다
1	나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2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3	나의 감정이나 경험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4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5	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6	지도자와 다른 집단원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꼈다					
7	지도자 또는 집단원들에게서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고 느꼈다					
8	집단 작업과정에서 긴장이 풀리고 아주 편안함을 느꼈다					
9	집단 작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몰입하게 되었다					
10	지도자 또는 집단원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11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12	사람의 본질과 감정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13	이전에 내가 회피했던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14	내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표현하였다					
15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16	지도자 또는 다른 집단원들에게 집단작업에서 좋은 관계를 표현하였다					
17	지도자 또는 다른 집단원에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였다					
18	일상 생활에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19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20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1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표현하거나 이야기 하였다					
22	집단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대해 표현하였다					
23	내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생각, 감정들을 다른 집단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4	나의 문제나 걱정, 기분, 느낌에 대하여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25	다른 집단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나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얻었다					
26	다른 집단원들도 나와 유사한 감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7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집단원이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준다고 느꼈다					
28	나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9	집단원이나 지도자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받고 도움이거나 충고를 들었다					
30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생각과 느낌을 알게되었고 문제가 비롯된 근원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31	지도자 또는 집단원의 생각이나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었다					
32	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들어온 것이 엇그제 같은 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주요 관심사가 임상심리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은 분야이기도 했고, 성격상 개인치료를 하거나 집단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겁도 없이 뛰어든 후 이것저것 부딪쳐 가면서 배운 것들이 보잘 것 없는 논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저에게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당신이 힘드시고 어려울 때에도 아들의 학업을 위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항상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꾸지람을 주시면서도 제가 힘들어 하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신 김정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난 2년이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매주 집단치료 슈퍼비전과 논문지도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늘 인자하신 웃음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던 채규만 교수님과 심사위원장으로서 논문의 세밀한 내용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이정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각종 과제물, 봉사활동, 세미나 등 자신들의 학업을 해 나가기도 바쁜 와중에도 매주 왕복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선배의 논문 집단에 보조치료자로서 성실히 참여해 준 명규, 민정이, 정윤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단

치료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잘 준비하고 챙겨주고 마지막에 논문 오탈자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준 지혜,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회기 초반에 초보 치료자인 저를 위해 선배이자 보조치료자로서 많은 도움을 줬던 린아, 영문 초록을 수정해 준 오랜 친구 소영이, 친구 공부한다고 적지 않은 돈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준 혁준이, 그리고 논문 집단 대상자를 빨리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나사랑 심리상담센터의 김주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학원 생활 2년을 함께 하면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힘든 일이나 기쁜 일도 늘 함께 해 주었던 현정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늘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공부함에 있어서 최고의 역할모델이 되어 주신, 그 누구보다 아들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뻐하고 대견스러워하실 그리운 아버지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